

전북 총생산액 7.6% 타지역 유출

전북연구원 “한해 3조7000억원 규모...해마다 증가 추세” 영업소·지사 등 산업구조가 주원인...본사 유치 등 대안 제시

전북 지역에서 발생하는 총생산액 (GRDP)의 7%가량이 타 지역으로 빠져 나가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연구원이 최근 내놓은 '지역 소득 역외유출 진단과 대응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도내 GRDP의 7.6%에 해당하는 3조7000억원 정도가 매년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유출 규모도 2000년 이후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소득 역외유출의 주된 원인은 지사, 영업소 중심의 산업구조에 따라 기업소득이 대부분 본사가 있는 타 지역으로 귀속되기 때문이라고 전북연구원은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도내 사업체 가운데 본사 비중은 95.2%로 전국 평균(95.4%)과 별 차이가 없지만, 매출액 비중은 53.2%로 전국 평균(63.9%)에 크게 못 미쳤다. 이에 따라 지역 내 선순환 경제체계를 구축하고 생산성을 높이도록 산업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북연구원은 도내보다 수도권이나 광주광역시에서 재화 및 서비스를 지출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파악돼 지역상품 소비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역 소득의 역외유출을 줄이고 선순환 경제체계를 구축하면, 도내 소득이 현재보다 6% 성장한다”고 분석했다. 전북연구원은 이를 위한 대안으로 ▲기업 유치 시 본사 기능도 함께 유치 ▲향토 기업 경쟁력 강화로 전북 고유의 분사형 경제 구축 ▲지역화폐, 지역상품권, 전북투어패스 등으로 소비 고취 인프라 구축 ▲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산업 체제로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전주=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춘향골 게이트볼대회 성황
고 뒤아온 실력을 겨뤘다.

지난 23일 춘향골체육공원에서 '제24회 대한노인회남원시지회장기 게이트볼대회'가 열렸다. (사)대한노인회남원시지회 주관으로 열린 대회에는 읍·면·동 분회 23개 팀이 참가해 갈

“시민 힘으로 녹색도시 만들자”

군산시, 10년간 500만그루 나무심기 현수운동 펼쳐

군산시는 오는 2028년까지 10년간 500만 그루의 나무를 심기 위해 범시민 현수운동을 펼칠 계획이다. 군산시에 따르면 군산산림조합이 총

4500만원 상당의 사업추진 의향서를 제출하고 산업단지 내 생말공원에 대양참나무 근원경 12cm의 큰나무 80본에 대한 현수및 시공을 진행해 미래 숲 조성에 동참했다.

또 대야면 한 시민도 반송 23그룹을 기증해 시는 중앙동 신청사 주민센터 화단과 월명동 신흥공원 등에 식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시민들로부터 받은 현수목을 산업단지 주변의 미세먼지 차단 숲이나 도시 숲, 공원, 도랑가 등에 심을 방침이다. 나무에는 현수한 시민의 이름도 써 붙인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

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익산시가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를 확대한다. 익산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기리고 영예로운 삶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보훈수당대상자 보훈수당 지원조례'를 개정했다.

이에 따라 참전 유공자와 전몰·순직군경 자녀, 참전유공자와 무공수훈자 사망시 그 배우자에게만 지급하던 보훈수당의 지급 대상이 확대된다. 이들에게는 월 2만원씩 지급된다. 확대 대상자는 4월부터 읍·면·동 신청을

통해 보훈정의 자격여부 조사를 거쳐 오는 7월부터 보훈수당이 지급된다. 시는 또 국가보훈대상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보훈회관 재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보훈회관은 신동 현 위치에 총 36억원이 투입돼 연면적 1320㎡,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오는 2020년까지 건립된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

정읍시 '공동체 어울림 행사' 26~27일 수성근린공원

정읍시가 주최하고 정읍시공동체 협회(회장 유연필), 수성지구상가회(회장 이성용)가 공동 주관하는 '제9회 공동체 어울림 한마당 행사'가 26~27일 양일간 수성근린공원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시민장안대회를 통해 발굴된 공동체들의 활동을 촉진하고 공동체와 수성지구 상가회 간 네트워크를 구축, 수성지구 상가회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동체 어울림 한마당에는 60여 개의 공동체와 20여 개의 수성지구 상가회가 참여한다. 수성지구 상가회는 65세 이상 어르신들께 짜장면 나누기 봉사를 진행한다. 또 공동체 회원들의 다채로운 작품을 볼 수 있는 전시회와 꿈나무인형극, 소리마당 예술 프로그램, 민명 나는 장구 공연, 아름다운 벨리댄스 공연 등 다채로운 축하 공연도 준비된다.

이외에도 시민과 함께 이야기하고 고민을 나누는 '보이는 라디오 토크쇼'도 진행된다. 특히 공동체 어울림 한마당에 참가하는 공동체와 수성지구상가회 80여 곳의 행사 참여시 부스당 2만원을 적립해 불우이웃 돕기 성금으로 기탁할 계획이다.

정읍시 관계자는 "제9회 공동체 어울림 한마당 행사가 시 공동체와 수성지구상가회, 시민이 하나되는 화합과 소통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15만 마리 나비와 함께 봄날의 여행

함평나비축제 내일 개막...60여 공연·체험 프로그램 준비

함평나비축제가 26일부터 5월 6일까지 11일간 함평엑스포공원에서 개최된다. '나비와 함께하는 봄날의 여행'이란 주제로 열리는 올해 축제는 24종 15만 마리의 나비는 물론 33종 42만 본의 다양한 초화류, 60여 종의 공연·체험 프로그램까지 다채롭게 준비했다. 축제장 입구에서는 거대한 '뿌사리(황소의방인)' 모형과 고목뿌리(팽나무)가 관람객들에게 첫 인사를 건넨다. 동선을 따라 중앙광장에 들어서면 커다란 향아리를 이용한 포토존과 야외 나비생태관, 은은한 향기의 꽃원두공 허브길이 반긴다.

올해 축제에서는 모두 40개의 다양한 체험을 해볼 수 있다. 최고 인기 프로그램인 야외 나비 날리기 체험은 올해도 중앙광장에서 평일 1회, 휴일 2회(선착순 150가족)에 한해 무료로 진행한다. 나비·곤충 생태관에서는 평일 100가족, 휴일 200가족이 실내 나비 날리기 체험을 무료로 즐길 수 있다. KTX가 축제기간 중 1일 4회(상·하행 포함)에 한해 함평역에 정차하며, 함평속박업소에서 1박을 할 경우 영수증에 명시된 금액을 기준(5만원 미만 1인, 5~7만원 미만 2인, 7~10만원 미만 3인, 10만원 이상 4인)으로 무료입장을 할 수 있다. 주말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함평시티투어 버스는 자연생태공원, 양서파충류생태공원, 상해임시정부청사 역사관 등 축제장 주변 명소들을 순회한다. 축제 기간 펼쳐지는 평일 1~2개, 주말 3~4개의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도 올해 나비축제를 풍성하게 꾸민다. /함평=황운학 기자 hwang@

특히 절도미수 사건과 100여원을 호가하는 가격으로 최근 관심을 끌고 있는 황금박쥐 조형물(순금 162kg, 은 281kg)이 중앙광장에서 첫 선을 보인다. 이 밖에도 각종 나비와 산업곤충들을 직접 만져볼 수 있는 나비·곤충 생태관, 과거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문화유물전시관 등 어린이는 물론 어른까지 흥미로운 볼거리가 즐비하다.

재경순천향우회 "우리도 순천낭만 기차여행 갑니다"

재경순천향우회 "우리도 순천낭만 기차여행 갑니다"

재경순천향우회(회장 최대규)가 1600여명의 회원과 함께하는 '순천낭만 기차여행'을 진행한다. 순천시에 따르면 재경순천향우회는 '2019 순천 방문의 해'와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 성공을 기원하기 위해 27일 '낭만기차여행'을 주제로 고향 순천을 방문한다.

최대규 재경순천향우회장은 "고향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의 하나로 어느 지역향우도 실천하지 못한 일을 하고자 기차를 타고 고향을 방문하기로 했다"며 "항상 내고향 순천이 더욱 발전하길 고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국가정원 잔디광장에서 향우회원들의 환영행사를 가질 계획이다. 공식 행사를 마친 향우회원들은 국가정원을 둘러보고 아랫장에 둘러 고향의 정을 맞볼 예정이다.

허석 순천시장은 "이번 재경향우회의 고향 방문을 계기로 향우회원 한분 한분이 모두 서울에서 고향 순천을 알리는 홍보대사가 되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창군은 개별공시지가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주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찾아가는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 감정평가사 상담제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기간인 오는 5월 7일까지 군청 종합민원과 토지관리팀 방문, 전화 상담, 현장 예약 방문상담 등으로 운영된다. 감정평가사 상담과 공시지가 열람은 군청과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토지관리팀에 전화로 예약 접수하면 감정평가사와 일정을 협의해 현장 상담

고창군,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

고창군 관계자는 "국세 및 지방세 부과 자료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통해 민원인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군민과 소통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창군은 5월 7일까지 지역의 21만1857필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 열람과 의견정취를 진행하고 있다. /고창=박형진 기자 phj@

남구 덕남동 임야, 추천

- 광주광역시 남구 덕남동, 산
- 임야 22600평중 300평, 지분매매
- 도시지역, 자연녹지, 그린벨트, 도로접
- 인접토지 맹지도 15-20만원에 매매 됨
- 대학교수, 세무사, 간호사도 매입함
- 각종 개발 호재 많음, 투자적합
- 장·단기 최고 투자처
- 기획부동산 물건 아님
- 매매 - 7,500만원

문의. 010-6834-7400

